

圖書館有感

崔甲洵

(인문대 동양사학과 조교)

서울大學校를 명실상부한 綜合大學으로써 定立시킨다는 것은 오랜 숙제의 하나였었다. 이른바 國大案의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게 出帆한 서울大學校가 궁극적으로는 이를 지향한 것이었다면 너무나 오래 계속된 難題였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서울大學校는 명목만 綜合大學이었을 뿐 사실상 聯合大學으로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점을 생각할 때, 이번의 冠岳캠퍼스로의 移轉은 커다란 轉機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순히 여러곳에 흩어져 있던 校舍를 한 곳으로 모았다는 사실보다는 한층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綜合化가 가져오는 여러가지 利點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研究機能과 教授機能의 통합을 들어야 한다. 大學 본래의 存在理由가 이러한 機能을 통해서 社會와 國家 나아가서는 真理의 탐구와 人類에의 기여에 있다고 할 진대, 綜合化에 따른 肯定的 評價는 贊言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이 나라 大學教育의 中樞의 인役割을 담당해왔고, 國家教育理念의 具現場이라 할 國立大學이라는 點에 감안할 때 綜合化를 겨냥한 이번의 移轉이 가지는 궁극적인 意義에 論難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移轉과 관련한 利害得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論해질 수 있는 것이었고, 曰可曰否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는 모두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論議였으며, 시행착오의 愚를 犯하지 않으려는 努力의 표현이었다고 하겠다.

冠岳캠퍼스에 처음 오는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캠퍼스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우람한 도서관 건물이라

하겠다. 물론 건물자체가 가지는 중후함에 눈을 두게도 되지만, 적어도 東崇洞캠퍼스의 中央도서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감회에 젖을 것이다. 특히 試驗期間등 利用度가 높아지는 때에는 아침 일찍부터 열을 지어서고 조금만 늦으면 “滿員”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돌아서야만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今昔之感이라는 말을 되뇌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圖書館이 大學社會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論한다는 것은 거의 意味가 없는 일이다. 研究와 教授라는 大學본래의 機能에의 일차적인 열쇠가 바로 圖書館에 있다면 서울大學校의 綜合化가 가지는 意義가운데 가장 큰 부분의 하나로서 圖書館의 統合이라고 해야 한다. 여러 分館에 분산되어 있던 圖書가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는 學問 상호간의 有機的인 關係를 보장해 주는 教授機能의 統合에 커다란 뒷바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규모의 크기에서 뿐 아니라, 圖書館을 利用해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點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염두에 떠오르는 것은 施設이 가져다 준 利點이다. 물론 이는 규모의 확대가 가져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圖書利用에 커다란 불편을 제거해 준 것이다. 參考圖書와 定刊物의 열람에 항상 불편을 느껴왔던 지난날을 생각할 때, 이들 도서를 別室에 비치된 것은 제일 먼저 환영받을 배려라고 보여진다. 利用度가 높은 參考圖書나, 定刊物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 하겠지만, 이제나마 오래된 바램을 이룰 수 있었다는 데에 반가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

다. 이와 유사한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準開架式으로 마련된 基本圖書室의 신설도 눈에 띈다. 이미 教養과정부에서 시도되었던 것을 연장한 것이라 하겠지만,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長點으로 지적되겠다. 기초적인 도서를 열람이나, 대출의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간단히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노력을 덜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차적인 施設上의 利點들임에 틀림없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書庫에서의 대출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었던 參考圖書나, 刊行物을 포함한 基本圖書의 열람이 손쉬워졌다. 것은 적어도 利用者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圖書館利用의 目的에 따른 열람실이나, 精讀室, 그리고 學位論文室의 분리배치 역시 고마운 배려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의 몇 가지 표면적인 면과는 달리 보다 중요한 것은 運營上의 改善에 있는 것 같다. 이에 있어서 뜻밖에 주오진 반가운 賦物은 書庫出入이다. 물론 大學生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반가운 배려임에는 틀림 없다. 일찍부터 外國大學의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들 가운데서 말해져 왔던 문제였기는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圖書目錄만으로는 圖書의 내용을 포함한 완전한 圖書검출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할 때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열람이나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던 지난 날을 생각할 때에도 훌륭한 改革이라고 말해야 하겠다. 전문적인 參考司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圖書目錄 자체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아울러 반가운 것은 館外貸出制度의 확대이

다. 교직원과 大學院生에게만 제한 되었던 관외대출이 學生一般에 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點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圖書館을 利用할 수 있는 時間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불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 조치는 사실상 圖書利用時間의 延長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備置圖書의 冊數가 빈약하기 때문에 한번 대출되면 또 다른 利用者에게 불편을 주게되는 短點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開館時間의 延長을 가져온 貸出制度의 확대는 그 弱點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다.

書庫出入이나 館外貸出 못지않게 利用上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요구한 圖書를 한결 신속하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일이다. 東崇洞에서 있었던例를 들면 특히 解放前 圖書의 경우에는 册 한권을 대출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施設上의 어려움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는 하겠지만 적어도 利用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던 것이다. 누구나가 입을 뚫고 털어놓던 불평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施設이 가져다 준 長點을 떠난 運營上의 개선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아직도 원활한 機能을 기대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느끼는 感懷는 모두 다의 것이라는 點을 부인할 수 없을 때, 移轉으로 얻어진 가장큰 수확은 바로 圖書館의 統合・改善에 있다하겠다.

위에서 본 長點들은 모두 지난날을 전체로 할 때 찾아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좀더 먼 앞을 내다 볼 때 느껴지는 아쉬움 역시 없다고 할 수만은 없다. 圖書의 種數나 所藏冊數가 결코 바람직한 선에 도달하지 못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點이다. 이의 해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단순한 欲心을 떠난 일차적인 문제라는 點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굳이 外國大學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圖書館의 기능이 바로 충분한 圖書의 제공에 있음을 인정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라 하겠다. 앞으로 차츰 개선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좀더 완전한 圖書카드와 目錄을 備置하여야 되겠다는 점이다. 특히 分類目錄의 배열이 정확치 못하여 많은 불편을 준다. 물론 書庫出入에 의해 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圖書카드란 바로 圖書利用의 일차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이는 한층 결실한 요구가 된다. 圖書名에서 보이는 것 만으로는 포함된 内容을 명확히 알아낼 수 없거나, 몇 가지의 주제에 연관된 도서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 카드가 각각 主題別로 중복하여 배열되었으면 하는 것이 커다란 아쉬움의 하나이다. 실제로 論文集이나 學術雜誌의 경우 圖書카드만으로는 도저히 어떤 내용의 글이 실려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所收論文의 소개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수록된 論文의 주제에 따른 카드의 主題別重複 배열이 아울러 요구된다.

다음으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른바 貴重圖書에 대한 관리이다. 일찍부터 불편을 느끼면서도 移轉을 기점으로 한 새출발에 기대를 걸어왔지만, 이루지 못한 바램이 바로 奎章閣圖書를 포함한 個人寄贈本도서의 利用節次의 개선이다. 물론 貴重한 圖書이며, 保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現行의 열람 절차는 너무나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한다. 오히려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貴重本圖書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에 보다 충실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必須的인 자료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들 도서의 利用절차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충분한 考慮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철저한 보존이나 관리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한 利用이 寄贈者가 바라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寄贈本圖書의 利用門戶는 더넓게 개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圖書館有感이 과연 圖書館에의 느낌에만 局限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아쉬움을 품은 채 마련된 여건의 한도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機能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利用者인 教職員과 學生들에게 맡겨진 부담이기도 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차지한 이만한 뒷바침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發展은 大學의 활발한 研究·教授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앞서 달려가는 學問의 발걸음이 도서관의 성장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명실공히 世界的 大學으로서 서울大學校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에게 지워진 부담큰 숙제이기도하다. 보다 알찬 열매를 위한 도약을 위해서는 모두가 연구하고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로되, 어려운 이 행로에 그나마 아쉬움을 채워주는 샘물이 바로 圖書館이라 할 때, 이의 價值는 한층 두드러진다. 오히려 圖書館의 施設이나 藏書에 거리낌없이 불평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길 수 있도록 충분히 자신들을 가다듬는 것이 오히려 좀더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끝으로 한마디 고마움을 덧붙인다면, 圖書館職員들이 보여주는 눈에 띈 친절이다. 지난날에 느꼈던 불편에서 벗어난데서 오는 가벼운 마음 가짐에서 연유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마음놓고 要求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데에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利相者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것이리라 생각되며 도서관의 발전을 기약하는 밀거름이 되리라 믿는다.